

“골병”

- 뼈를 치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1. 스트레스와 뼈의 건강

일본의 과학 월간지 <퀴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가 먹는다"는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긴장이 계속되면 이것이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인체 안에 칼슘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로 인해 혈액 중의 칼슘 성분이 정상치 이하로 떨어지면 부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으로 뼈를 녹여 모자라는 칼슘 성분을 보충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은 식품을 통해서 장에서 흡수되는 칼슘이 부족할 때만 이루어진다. 결국 이러한 작용으로 뼈가 녹아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뼈를 녹여 보충되는 칼슘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는 혈액 중에 칼슘성분이 크게 늘어나고 이 성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경우 세포활동을 저하시키고 세포를 노화시켜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의 각종 질환을 야기시키게 된다. 즉 칼슘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벽의 탄력이 상실되고 상처를 쉽게 입어 콜레스테롤이 모여들어 동맥경화가 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칼슘 성분이 만약 뇌혈관이나 뇌신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뇌졸중이나 노인성치매증까지 발생시킬 수 있고 심장 혈관으로 들어가면 심근경색까지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혈행이 안 좋아지고 혈관을 약화시켜서 부정맥이나 잦은 출혈을 일으킨다. 전반적인 모세혈관의 작용이 둔화되면 관절의 통증이나 뼈 마디의 퇴화 등이 진행된다.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미 상당히 정도가 심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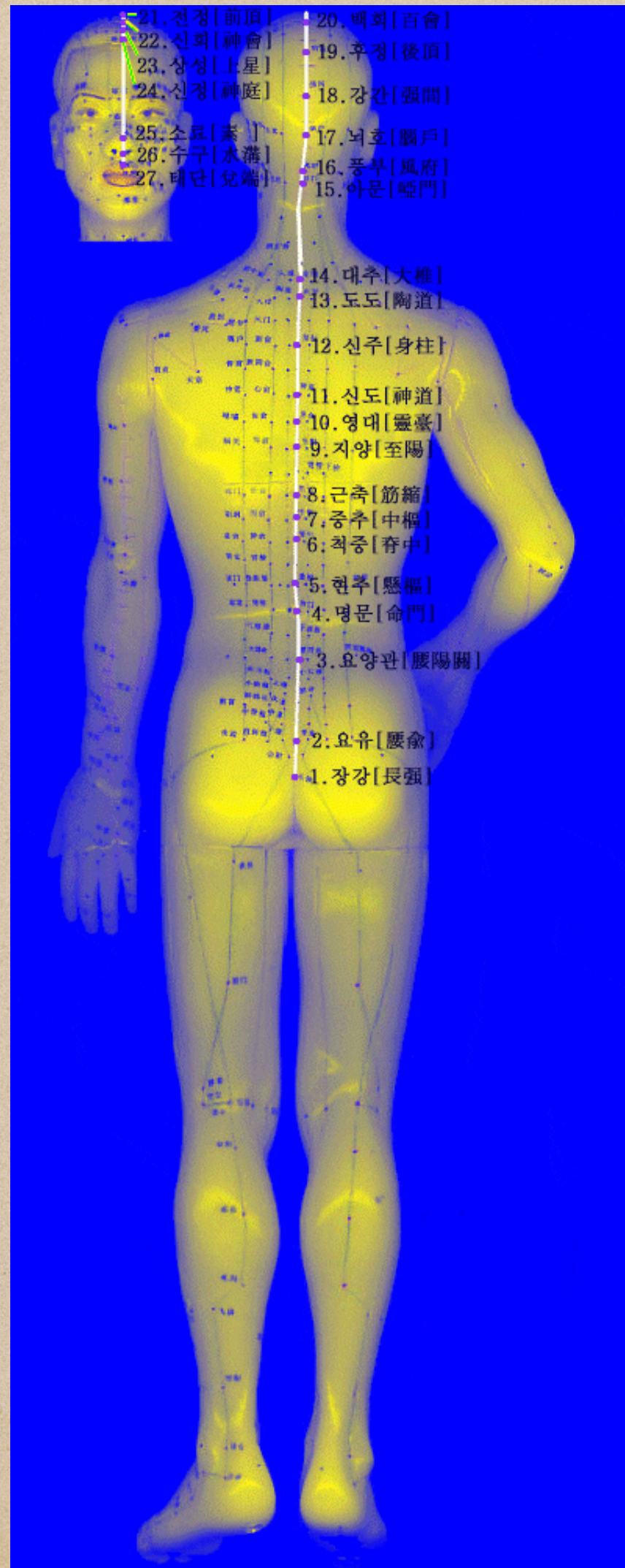
2. 척추독맥수련

- 모든 장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핵심은 척추에 있다.
-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때 머리와 척추에 냉기가 침투하면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쓸 때도 척추에 냉기가 든다.
- 척추에 냉기가 들면 몸이 무거워지고 자율신경기능이 실조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고 감기에 걸리기 쉽다.
- 수련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화가 넘쳐 잡념이 사라지지 않으며 손발이 저리고 입정시간이 짧아진다.
- 척추에는 각 장부를 관장하는 뼈가 지정되는데 냉기가 오래되어서 구조화되면 암이나 치명적인 질병이 장부에 나타난다.
-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으로 머리카나 척추가 다쳤을 때 염좌가 발생하면 냉기가 구조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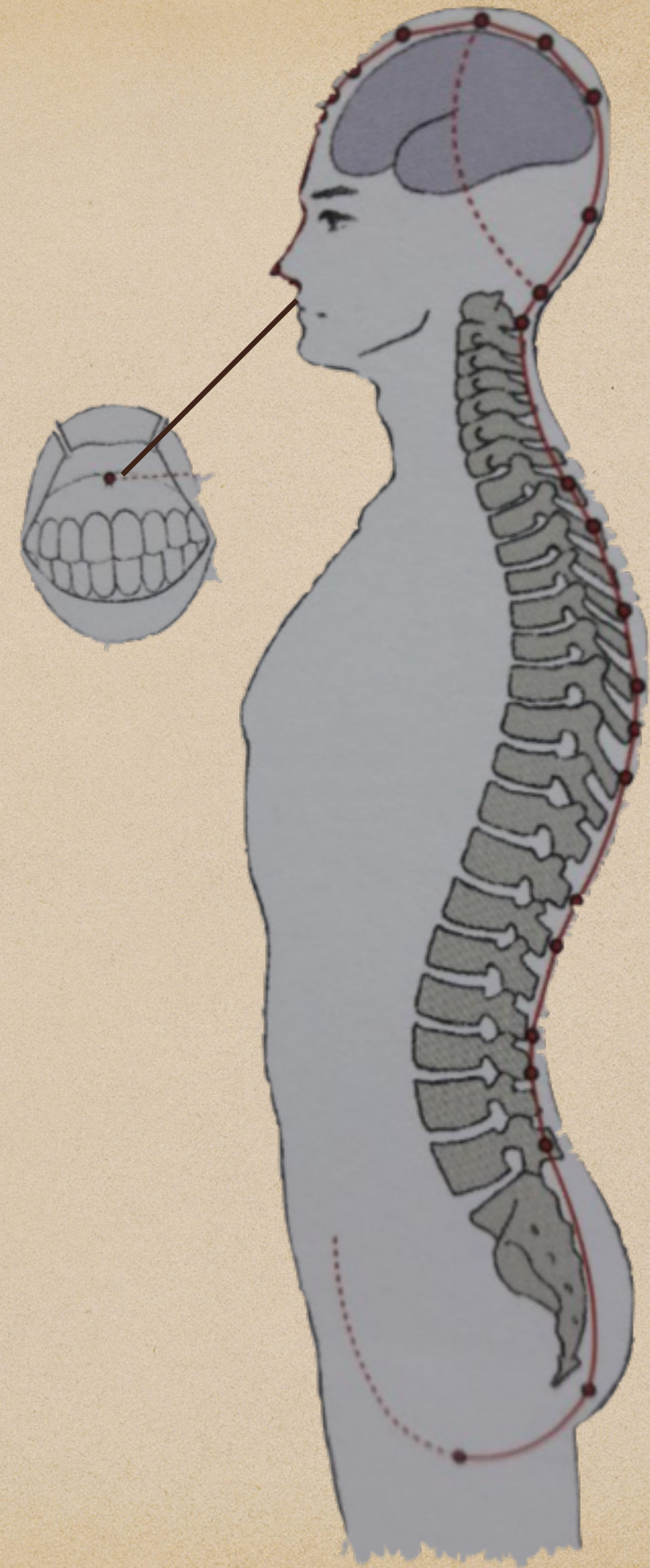
3. 치료방안

- 거대한 참나무를 연상하며 내 척추를 이룬다고 연상합니다.
- 명왕성과 태양을 이용하여 척추를 관통하도록 합니다.
- 토션파를 이용하여 거리감을 없애고 장이 무한대로 퍼져나갈 때 그 빛을 토션파라고 연상한다. (발산)
- 사방 우주에서 척추와 척수 그리고 척수신경을 비출 때 역시 토션파를 이용한다.
- 척수 신경을 복소수장이라고 여기면 전체가 하나의 장을 이루며 우주 동시장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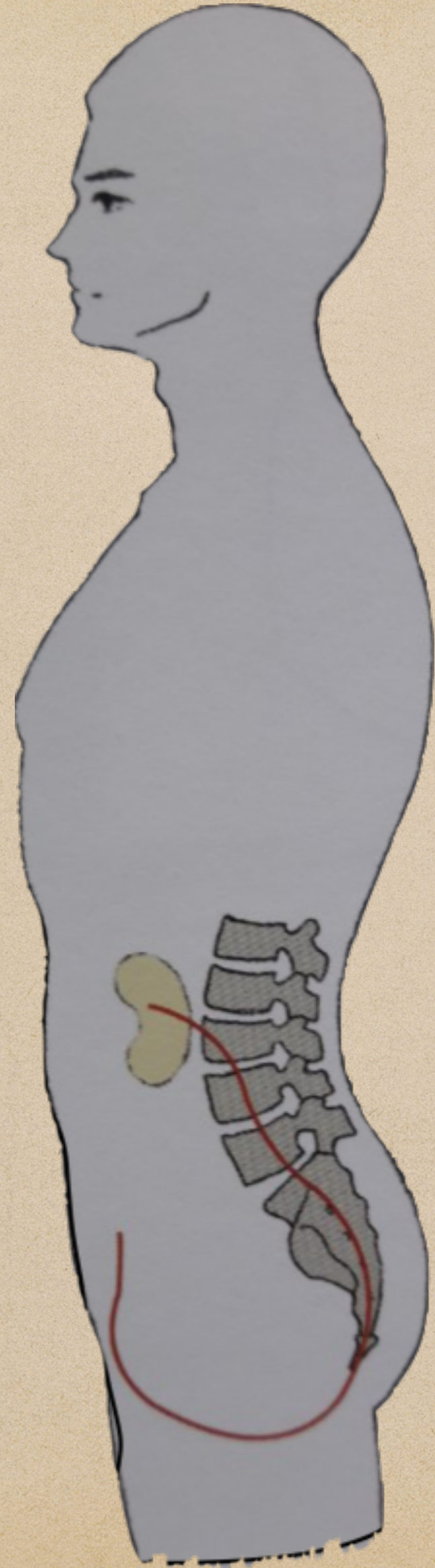
4. 독맥의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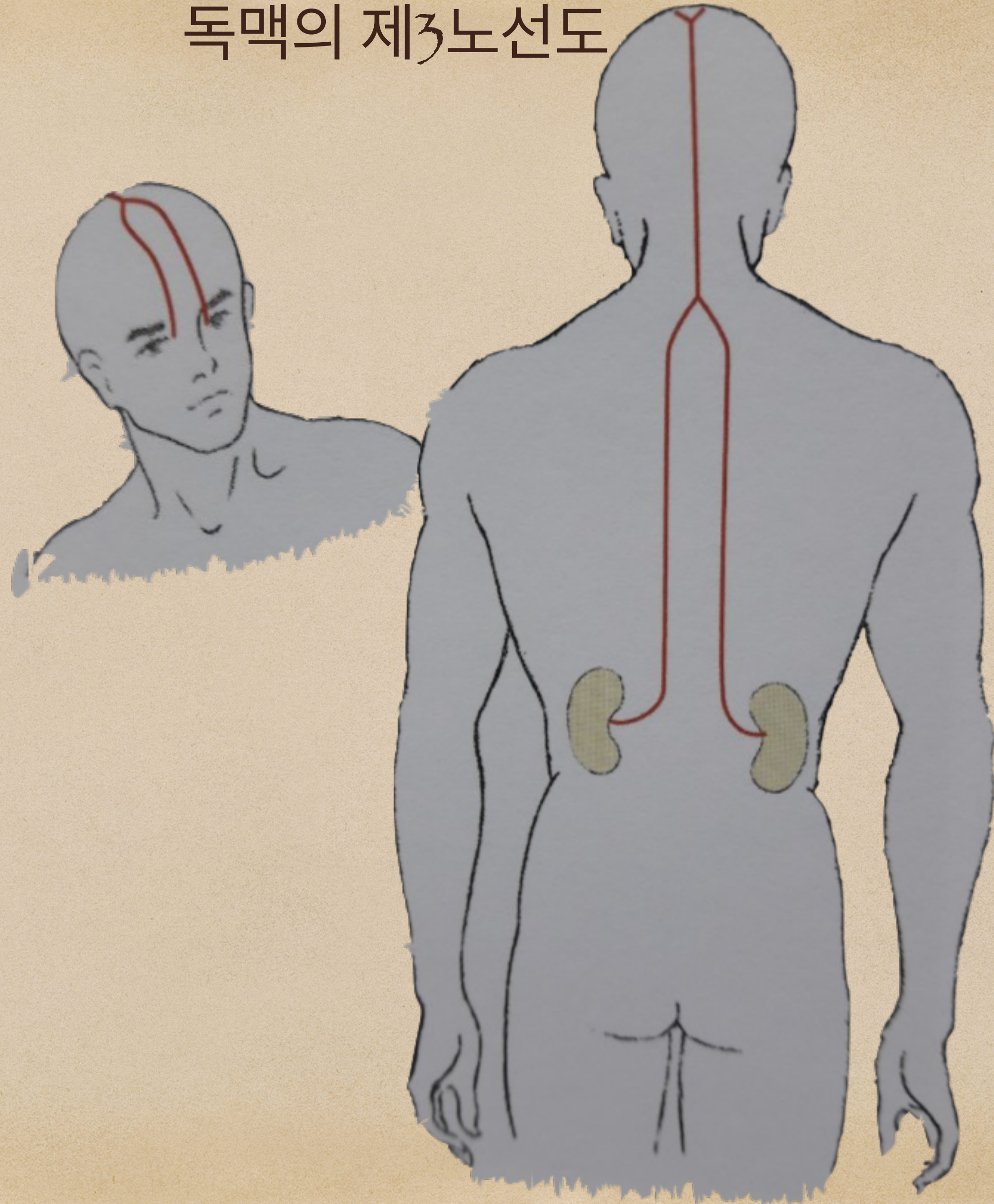
독맥의 제1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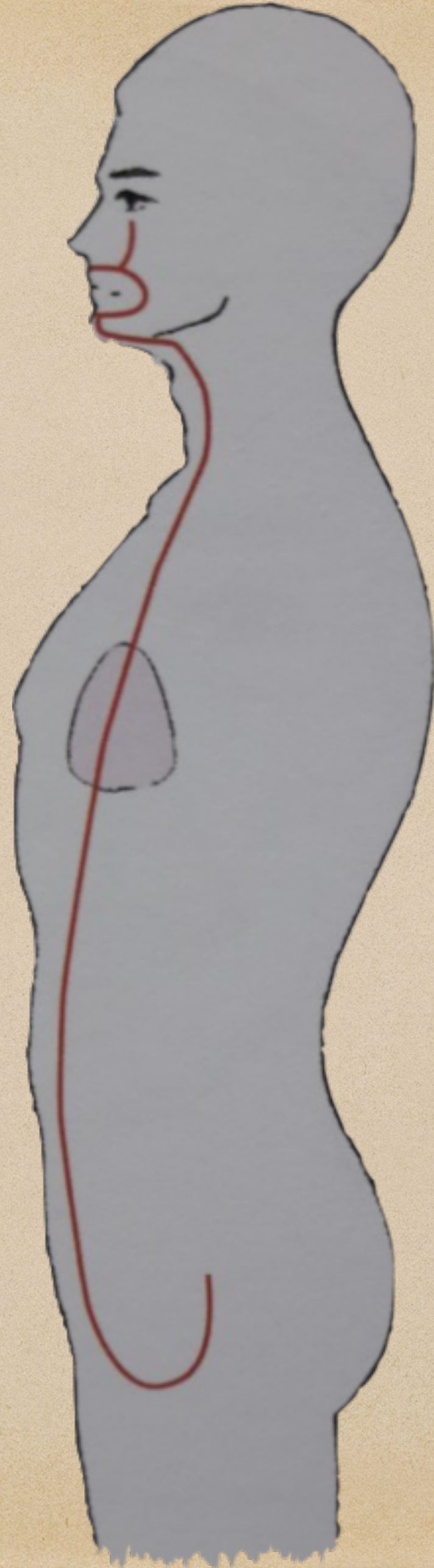
독맥의 제2노선도



독맥의 제3노선도



독맥의 제4노선도



5. 독맥의 제1노선을 중심으로 살펴본 골기의 기능

- 골기는 뼈의 기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뼈안의 골수, 척수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 뼈는 신체의 지주를 이루며 체강(體腔)을 형성하고 기관(器官)을 내부에 넣어 보존(두개강, 척추관, 흉강, 골반)
 - 뼈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에 의하여 수동적 운동을 한다.
 - 뼈의 내부에는 적색의 골수가 있어서 조혈작용(造血)을 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든다.
 - 척추관 안에 있는 척수에는 수의근육 반사중추와 내장 반사중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등의 각종 신경세포가 있어서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의 영역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못한다는 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길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측면도 있을 것이다.
 - 기의 관점에서 보면 뼈는 인체에서 모든 내장기관과 내부분비선, 나아가 대뇌활동에서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두개골의 경우 두뇌를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 두개골에 손상을 입었을 때는 두뇌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머리의 모세혈관의 혈행장애가 생길 정도의 상처는 두개골의 성장과 기능에도 장애를 초래해 두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1. 출산시 태아의 머리에 생긴 가벼운 상처가 태아가 성장한 뒤 두개골의 성장을 부분적으로 지체시키거나 퇴화시켜 해당 부위의 두뇌활동 장애를 불러일으키거나 정신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2. 성장기의 어린이 머리에 입은 상처나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도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혈행장애와 두개골의 퇴화를 초래, 심각한 장애를 낳는 경우가 많다.

3. 이런 경우 뇌기능이나 정신신경계통의 장애가 있는 환자를 기공의 감각으로 확인한 다음 해당 부위의 두개골을 만져보면 촉감으로 확인될 정도로 퇴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추(頸椎)는 뇌수에서 이어지는 척수의 도입부분이 되는 목뼈로서 좌우의 기능상태에 따라 신체전반의 좌우균형이 달라진다.

1. 오른쪽 경추가 퇴화되면 뇌수로부터 이어지는 척수의 흐름이나 전반적인 기혈이 저하되어 오른쪽 견갑골, 늑골에 이어 왼쪽 대퇴골부분이 동시에 퇴화된다.

2. 왼쪽 경추가 퇴화되면 왼쪽 견갑골, 늑골에 이어 오른쪽 대퇴골부분이 퇴화되어 좌우의 기혈이 달라지면서 신체의 좌우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제1경추 : 신경쇠약 히스테리, 불면증, 신경질환, 현기증

제2경추 : 두통, 사경(斜頸), 급격한 충격에 의한 증세, 요독증

제3경추 : 난청, 코질환, 눈질환, 어깨결림

제4경추 : 삼차신경통, 약시, 위경련, 치아질환, 귀질환, 편도선염

제5경추 : 급격한 충격에 의한 증세, 기관지 천식, 후두질환

제6경추 : 갑상선종, 천식, 바세도씨병(갑상선호르몬과잉분비)

제7경추 : 동맥경화, 기관지염, 심장병

- 흉추, 요추, 선골은 오장육부의 내장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대체로 내장기관의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해당 척추의 뼈마디가 튀어나와 있거나 함몰되어 있다.
- 폐는 흉추 3번 하단, 심포는 흉추 4번 하단, 심장은 흉추 5번 하단, 간은 흉추 9번 하단, 담은 흉추 10번 하단, 비장은 흉추 11번 하단, 위는 흉추 12번 하단, 삼초는 요추 1번 하단, 신장은 요추 2번 하단, 대장은 요추 4번 하단, 소장은 선골 1번 하단, 방광은 선골 2번 하단
- 흉추, 요추의 기능퇴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흉추 : 흉근과 머리의 질환, 혈압항진증, 심장내막염/외막염, 폐기종
 - 제2흉추 : 심장병, 동맥경화, 유즙결핍
 - 제3흉추 : 폐결핵, 폐렴, 늑막염, 일시성 질식
 - 제4흉추 : 간장질환, 위산과다, 당뇨병, 황달, 어깨결림
 - 제5흉추 : 위병 일반, 오한, 취장염
 - 제6흉추 : 위질환, 신장병 일반, 늑간신경통, 소화불량
 - 제7흉추 : 위질환, 위궤양, 식욕부진
 - 제8흉추 : 간장병 일반, 당뇨병, 소화불량
 - 제9흉추 : 소아마비, 하지마비, 담석, 운동부족으로 인한 내장 질환
 - 제10, 11, 12흉추 : 신장병일반, 류마치스, 빈혈, 심장판막, 협착증, 당뇨병, 충혈, 설사, 열성병(熱性病), 대하

- 요추의 기능

제1, 2요추 : 위장병 일반, 변비, 신경성피로, 피부염, 빈혈, 불임증, 간장질환

제3요추 : 난소질환, 월경불순, 자궁병, 생식기 질환, 요도염

제4요추 : 변비, 요통, 좌골신경통, 슬관절 질환, 치질

제5요추 : 치질, 류마치스 국소마비, 다리 허리냉증, 직장출혈, 자궁질환

미골 : 방광, 직장, 생식기 질환, 좌골신경통, 신경성 질환

- 척추안으로는 척수가 흐르고 있으며 각종 신경세포가 활동

1. 흉수와 상위의 요수로부터는 교감신경이 나오고 선수로부터는 부교감신경이 나온다.
2. 그 외의 척수에는 수의 근육 반사중추, 내장반사중추 등이 존재
3. 내장반사중추로서는 요, 천수에 배변, 분만, 사정, 발기 등 역할
4. 선골, 미골과 골반의 뼈는 중추신경계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고 생식기관을 포함한 중요기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곳의 뼈가 냉하게 되면 기혈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여러가지 장애가 따르고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지며 만병의 원인이 된다.

- 척추에 연결되어 중요 내장기관을 감싸고 있는 늑골(갈비뼈)는 그 기능에 따라 각 장부의 기능을 좌우

1. 폐와 심장을 싸고 있는 앞가슴의 늑골이 퇴화하거나 냉하게 되면 이들 장기의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오래되면 기혈의 순환이 장애받아 각종 암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2. 좌측 11번의 늑골은 비장의 기능과 관계가 있으며 좌측 12번 늑골은 위, 우측 9번 늑골은 간, 우측 10번의 늑골은 담의 기능과 관계가 있다.

- 어깻죽지 있는 부위의 빗장뼈(쇄골)는 갑상선을 비롯한 각종 내분비계통과 내과질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곳을 자율신경계의 검문소라고도 한다.

- 각종 뼈의 기능은 그 뼈가 퇴화하거나 냉해질 때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뼈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그 뼈의 독자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거나 뼈의 냉기를 제거하는 것이다.